

사단  
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소식지 **일시천금**

2025년 12월호



울산 반구대 암각화 활쏘기

2025.12.20

(사)활쏘기문화보존회 소식지  
일시천금 2025년 12월

1

인사말 나영일 / 03

특별기고: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활의 문화,  
유네스코 공동등재로 확장할 때 김덕순 / 06

활쏘기 문화 세계화 도전기: 인도네시아 반둥 프로젝트 이승환 / 10

제8회 중국 오채신전(五彩神箭) 국제민족전통활쏘기  
초청대회 참가기 서보경 / 17

제3회 총장공 양현수 기념 활쏘기대회를 마치고 양희선 / 22

점필재 김종직과 향사례 박근 / 25

謙讓과 德談의 대표적 상징 : 초시례(初矢禮) 김이수 / 30

활동 / 33

회원대모집 / 34

\* 표지 사진 - 울산 반구대 암각화 활쏘기

펴낸이 나영일

엮은이 변정용

펴냄날짜 2025년 12월 20일

펴냄범위 사단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원

## 인사말



나열일(회장)

존경하는 활쏘기문화보존회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올해는 우리 활쏘기문화보존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울  
산시와 국제학술대회 및 2025울산세계  
궁도대회 참여와 관련하여 기대만하고,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  
습니다.

그나마 2025 KOREA 울산 궁도대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하면  
서 보존회에서 문미숙, 정충우, 양세희,  
김정상접장이 합류하여 참가하였습니다.  
울산세계궁도대회는 4박5일간 32개  
국 전 세계 32개국 577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전통 활쏘기문화를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1  
45m(한국식), 90m(헝가리식), 70m(튀  
르키예식 Puta경기), 30m(카자흐스탄식  
Zhamby경기) 등 4개 종목으로 나뉘어  
치러 52명이 참가하여 주최국인 한국(1  
85명 출전)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선  
수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  
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해야할지, 우리  
가 그렇게 자랑하는 145미터 경기에서  
러시아선수가 우승하는 일이 벌어졌으  
며, 기타종목에서 우리나라는 수상자가  
한 명도 없는 초라한 주최국이 되고 말  
았습니다. 각국별로 15명이라고 해놓았  
으나, 그렇게 구성이 되지 못한 Open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골프나 테니  
스 등에서 오픈 대회는 아마추어와 프  
로가 함께 하는 경기로 누구나 참여하  
는 대회를 말합니다. 명실상부한 대회  
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동수의 선  
수단이 구성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  
여 우스운 대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  
리나라선수들은 흰색경기복을 입고 참  
가하여 전통활쏘기라는 대회취지가 무  
색한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울  
림픽 양궁에서 10연패하는 전통을 가진

활쏘기 강국이 이번 대회 145미터 한국식경기에서 러시아 선수에게 패하고, 남녀 단체전에서만 우승하였으며, 나머지 종목에서는 한 개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국가종합순위에서도 1위는 카자흐스탄이 차지하였고, 우리나라는 오직 145미터에서만 점수를 따서 2위를 하였으며, 튀르키예가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한궁도협회는 영문표기가 National Archery로 국가를 내세우다보니, 전통(Traditional)이란 개념이 빠져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전통활쏘기의 개념과 정체성 그리고 울산세계궁도대회의 성격 등을 새롭게 정립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우리 보존회에서는 강남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 활터건립을 건의하였습니다. 지동철사무국장의 정보로 서울시 강남구에 활터건립에 대한 소식을 듣고, 윤석민의원(강남구의회 개포 1·2·4동)을 만나 전통 스포츠인 국궁장 설치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세곡동 체육공원에 국궁장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현재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 노인회에서 파크골프장건립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강남구 세곡체육공원내에 국궁장 설치나 파크골프장 설치나 하는 문제가 있어 아직도 의견조율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초 영암 열무정에서 영암군에서 열무정 활터 공간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대토하여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활터가 파크골프장에 밀리는 형국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2022년도에도 대모산에 국궁장 건설을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도 공문을 보내 활터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조선시대에 무과시험과 군사훈련을 하던 모화관(慕華館)과 경기감영이 위치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보물 제1349호 『경기감영도 12곡병(京畿監營圖十二曲屏)』(18세기제작)에는 읍승정(揖升亭), 연향대(宴享臺), 사정(射亭), 천연정(天然亭), 칠송정(七松亭) 등에서 활쏘기를 하는 장면이 잘 나타나있습니다.

또 『조선의 궁술(朝鮮의 弓術)』(1929)에는 서대문 밖의 노지사정(盧知射亭), 무반정(武盤亭) 서호정(西虎亭), 무암정(武巖亭), 서소문(西小門) 밖의 태호정(兌虎亭) 등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여대 정문쪽 현재의 대현동 56번지 일대에 "활터"라고 부르던 곳이 있었다고 하는 향토사 관련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대문구는 여러 활터가 있었던 곳이었는 데, 현재는 단 한곳도 없어 역사의 단절이 매우 아쉽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8곳의 활터가 있는데, 서대문구에도 적지 않은 동호인이 종로구, 중구, 강서구 등의 활터에서 활동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145미터 활터나, 중구 훈련원공원내 종합체육관 처럼 30미터 짜리 실내활터라도 건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활쏘기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의 정책개발실 김덕순 실장님에게 특별 원고를 부탁하였습니다.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위하여 2011년에 창립된 대한민국 문화 분야 최초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입니다. 김덕순실장은 2015년 12월 한국(6개의 줄다리기),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줄다리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실무작업을 한 적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당진 기지시줄다리를 중심으로 강원도 삼척 기줄다리기, 경남 창영의 영산줄다리기, 밀양의 감내 게줄당기기, 의령큰줄땡기기, 남해의 선구줄끗기 등 총 6개 줄다리기 종목이 함께 등재 되었다. 지금처럼 우리의 활쏘기가 기사와 보사 그리고 각궁과 개량궁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천활박물관, 영집궁시박물관, 예천박물관 등과 각종 활쏘기 단체를 아우르고,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하면서 활쏘기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추후 글을 발표하고 싶거나, 제안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사무국에 연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소식지를 멋있게 만들어주신 변정용교수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끝.

**특별기고**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활의 문화, 유**  
**네스코 공동등재로 확장할 때**



**김덕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개발실장)

전통활쏘기(traditional archery)는 단순한 사격 기술이나 스포츠를 넘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동체의 정체성, 윤리와 철학, 세계관을 담아온 복합적 문화 실천이다. 한국을 비롯해 몽골,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유럽 등지에서 활쏘기 전통이 각기 고유한 양식으로 전승돼 왔다는 사실은, 이 문화가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가 공유해 온 인류 보편의 문화유산, 이 문화가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가 공유해 온 인류 보편의 문화유산, 즉 공유문화유산(shared cultural heritage)임을 시사한다. 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상호 존중과 문화다양성, 공동체 간 연대를 무형유산 보호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통활쏘기는 이러한 국제 규범과 긴밀히 호응하는 대표적인 문화적 실천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장인과 재료의 감소, 실천 공간 부족, 청소년 세대의 관심 약화 등 전승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적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보호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통활쏘기를 인류 공동의 문화 공공재로 재정립하고, 관련 국가 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이다.

유네스코는 문화 간 연대와 지속가

능성을 강화하는 효과적 방식으로 공동등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실제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전체 인류무형유산 등재 종목 중 절반 이상이 공동등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한국·캄보디아·필리핀·베트남이 공동으로 등재한 ‘줄다리기’는 다국가 공동등재가 상호 방문, 공동 교육, 학술 교류 등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성공 사례다. 전통활쏘기 역시 몽골의 나담 축제 속 활쏘기 종목(2010), 튀르키예의 전통 궁술(2019) 등 단일국가 등재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다자 공동등재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토대가 이미 상당 부분 구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활쏘기 공동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국 선정과 문화적 서사 구축이 중요하다. 전통활쏘기가 넓은 문화권에서 실천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1단계에서는 유네스코 등재 경험이 풍부하고 활쏘기를 민족 정체

성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한국·몽골·튀르키예가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를 참여시켜 유목문화와 활 문화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3단계에서는 헝가리·조지아 등 동유럽의 활 전사 문화 보유국까지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동등재는 단순히 여러 국가의 신청서를 취합하는 절차가 아니라, 참여국이 전통활쏘기의 역사적 기원과 철학적 의미, 실천 방식의 차이와 공통점을 분석하여 공동의 역사 서사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활쏘기를 ‘문화다양성 속의 보편성’을 구현하는 대표적 공유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또한 공동등재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 요구하는 보호계획을 다자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참여국들은 청소년 중심 전승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해 국제

활쏘기 청소년 아카데미, 여름학교, 문화캠프 등으로 운영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전통 활 제작 장인의 기술과 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 활터 운영 방식과 의례·예법에 대한 기록화 및 영상 아카이브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 더불어 선사시대 활 문화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와 현대 전통활쏘기의 연속성을 공동 연구함으로써, 전통활쏘기의 역사성을 국제사회에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호계획은 공동등재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전승 기반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장치가 된다. 국제 축제 및 교류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공동등재 추진의 중요한 실행 전략이다. 몽골의 나담(Naadam), 세계유목민축제(World Nomad Games), 튀르키예의 전통궁술대회 등은 이미 전통활쏘기를 핵심 프로그램으로 포함한 대표적 국제 행사들이다. 공동등재 참여국들은 이러한 행사에 '전통활쏘

기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제 전통활쏘기 주간 지정, 공동 심포지엄·워크숍 개최, 청소년·여성 공사 대상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

아울러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이 강조하는 공동체 중심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등재 과정에서 포용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 전통활쏘기가 군사 훈련과 남성 중심 구조로 인식돼 왔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국들은 여성·청소년 공사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설계하고, 가족 단위와 지역 공동체 단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실천 저변을 넓혀야 한다. 이러한 포용성 강화는 단순한 형식적 평등을 넘어, 전통활쏘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기반 전승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끝으로 전통활쏘기 공동등재는 지방

정부, 국가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술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요구한다. 지방정부는 전통활쏘기를 도시 브랜드와 관광, 문화도시 전략과 연계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기관은 전승 정책, 연구, 기록화, 외교 채널을 통한 정부 간 협의를 담당해야 한다. 유네스코와 무형유산 관련 국제기관은 기술 자문과 공동 조사, 국제 세미나 운영을 지원하며, 공동체와 시민사회는 실천과 전승의 핵심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 협력 구조는 공동등재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통활쏘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는 단순한 목록 등재를 넘어, 여러 문화권이 공유해 온 인류 공동유산에 대한 재인식과 문화다양성·공존의 가치를 강화하는 전략적 국제협력 과정이다. 전통활쏘기는 역사적 기원, 철학적 의미, 공동체 실천 방식에서 다양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공동등재에

가장 적합한 대표적 공유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공동등재를 통해 아시아 문화유산 협력의 거점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외교·관광·교육·콘텐츠 산업과의 연계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활쏘기 공동등재는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적 문화 연대 기반을 구축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문화유산 정책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끝.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無形文化遺產, 문화어: 비물질문화유산(非物質文化遺產), 영어: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 활쏘기 문화 세계화 도전기: 인도 네시아 반둥 프로젝트

이승환

(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장, 석호정)

### 1. 들어가는 말

2013년 여름 석호정에서 집궁한지 12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적지 않은 세월이다. 별일이 없는 한 주 3회 이상 활공부를 해왔으니 활쏘기는 은퇴 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우리 활쏘기는 처음부터 나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활로 가장 먼 사거리의 과녁을 맞히는 놀이인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결음도 좋아야 하고, 쏘는 태도와 자세도 바르고 아름다워야 한다. 쏠 때 마음도 올곧고 지극정성을 다 해야 한다. 옛부터 활쏘기를 관덕이라 부른 연유일 것이다.

우리에게 활쏘기는 무기기능을 넘어 개인의 심신수련과 양생의 도구로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화합을 위한 문화로 다양한 용도로 진화해왔다. 일반적으로 활쏘기는 세계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해온 매우 보편적 문화이지만 우리활쏘기(국궁) 문화의 발전 수준은 실로 자랑할 만하다.

나는 우리활쏘기를 배워오면서 재미와 더불어 건강과 양생은 물론 활쏘기의 역사와 문화 등 인문학적 측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가 활을 내고 있는 석호정은 역사적으로도 오래되고 활터도 아름답기로 손에 꼽을 정도이다. 특히 남산 북쪽 순환로에 접해 있어 해외관광객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활쏘기 모습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올림픽과 세계 양궁대회에서 한국이 발군의 성적을 내고 있음은 알고 있지만 우리활쏘기 과녁이 소나무 숲 건너 정말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는 모습이다.

많은 한국인 경우도 우리가 예로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주몽, 양만춘, 이성계, 이순신 등 나라를 지켜 온 명공들의 영웅담을 들어 아는 수준에 그치고 우리활쏘기를 직접 경험해보거나 그 엄청난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안타까웠다. 국궁 문화가 잘 보존되고 연구되어서 그 가치가 더욱 밝혀지고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활쏘기를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운이 좋게 활터에서 벌써부터 비슷한 생각을 해 오신 열정적인 선배들을 뵈게 되었고, 국궁발전 연구에도 참여하고 활쏘기 문화보존회 설립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늦었지만 2020 7.30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문화적 가치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궁 동호인도 노년층 위주에서 벗어나 지금은 30여개 대학에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대학궁도연맹도 설립되었다.

나는 우리활쏘기가 태권도나 유도처럼 세계에 널리 알려져 많은 세계인들

이 즐길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많은 대학의 넓은 캠퍼스에 활터가 만들어지고 많은 학생들이 활쏘기를 즐기는 모습을 그려보곤 했다.

## 2. 반동에 가다

여름 무더위가 점점 심해져 여름날이 무서워지면서 40여년 전 유네스코 출장으로 가보았던 인도네시아 반둥과 함께 활쏘기가 동시에 생각났다.

반둥은 1956년 최초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열리고 미소냉전체제에 저항하는 비동맹그룹을 탄생시킨, 국제정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상적인 도시였다. 인도네시아 독립영웅으로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를 배출한 인도네시아 제일의 공과대학인 ITB가 생각났고 적도 바로 직하에 있지만 고도가 높아 날씨가 비교적 선선하여 즐겁게 보냈던 40년 전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에게

여름휴가로 반동에 갈 생각인데 한국의 활쓰기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니 반동에 있는 인도네시아국립교육대학(UPI)이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사업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다고 했다.

유네스코 도움으로 알게 된 UPI 한국어교육과 학과장인 디딘(Didin)교수에게 여름휴가로 7월말에서 8월말까지 반동에서 한 달 살기를 할 계획인데 여건이 되면 반동 체류 중 학생들에게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인 국궁을 소개하는 세미나와 국궁 체험 강좌를 할 생각이 있으니 의견을 부탁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디딘 교수로부터 반가운 회신이 왔다. 그때가 방학기간이라 대부분 학생들은 귀향했으나 졸업논문을 마무리하는 4학년 일부 학생과 반동이 고향인 학생들이 남아있어 6-7명 정도는 참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곳이 방학기간이지만 프로젝트 마무리, 학술회의 참가와 주최 등 학사 일정이 빡빡하니 나에 관한 구체적 일정은 반동에

오신 후 논의하자는 내용이였다. 7월 24일 출발 일까지 일주일 남아 있었다. 우선 국궁 교육에 필요한 장비인 활, 화살, 깎지를 포함해 실내연습용 작은 솔포와 활쓰기 문화보존회 기획으로 한국문화재단에서 발간한 “대학활쓰기 가이드 북”, 활쓰기 교육 관련 동영상 등을 준비했다.

활 3장( 10파운드 25파운드 40파운드), 화살 25개를 마련했다. 활쓰기 교육 자료와 장비 마련에 활쓰기 문화보존회의 협력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드디어 7월 24일 자카르타에 저녁 도착하니 UPI 한국어과 학생인 엘리카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어 편하게 반동까지 와서 예약했던 에어비앤비 숙소로 도착하니 한 밤중이었다. 숙소는 Dago 라는 좋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해서 예약했는데 시설이 낡고 문제가 있어 하루만 자고 다음 날 UPI 근처에 있는 Best Western 호텔로 옮겼다. UPI가 당시 방학기간이지만 전국 한국어교육학회 총회와 각종 프로젝트 마감 등 바쁜

일정 이어서 협의한 결과 국궁수업은 8월 7부터 8월 15일 까지 오전9:30-12:00에 하기로 했다.정식 신청학생은 7명이었으나 첫날 오리엔테이션에 사진을 찍으러 들어온 무소니프와 참관 하러온 엘리야나가 추가로 참가하고자 하여 9명이 되었다. 9명 모두 4학년이었고 남학생 2명 여학생 7명 이었다.(엘리카, 친따, 요요, 바니, 라라, 위디, 예자, 엘리야나, 무소니프)

8월 7일 첫날 수업장소는 UPI 1층에 있는 회의실로 유튜브 이용도 가능하며 석호정도 소개하고 활쏘기교육 동영상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 우선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각자 자기소개를 한 후 우리활쏘기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고 활과 화살 및 깎지 등 주요 장비와 활터 예절과 문화, 활 쏘는 방법과 안전 규칙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활시위를 엮고 부리는 방법과 활쏘는 방법을 사대에 들어서서 인사하고 발시까지 단계를 동영상과 함께 설명하고 한 명씩 나와 시위 엮고

부리고, 사대에 서서 과녁을 향해 인사하고, 살 메기고, 들어 올리고, 당기고, 버티고, 발사 전 까지 단계를 연습하게 하였다.10파운드 활로 연습하였으나 처음에는 어려워했으나 반복 연습으로 익숙해져갔다.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포함 8회 수업을 진행했으며 2회째부터는 9:30에 회의실에 모여 어제 배운 시위 엮고 부리기, 활쏘기 단계별 자세 등을 복습하고 10분 여 거리에 있는 축구장으로 가서 실제로 활쏘기 연습을 1시간 반 정도 했다. 12시경 연습을 마치면 주로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비록 과녁은 없었지만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훈련 시켰던 축구장은 활쏘기를 안전하게 연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연습 일 수가 늘어날수록 살 날아가는 거리는 늘어나고 살걸음도 좋아졌다. 과녁이 없기에 오히려 자기 자세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궁력을 키우고 자세를 잡는 데 효과적이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4회 차 수업에는 유네스코 세계시민 교육센터 소장인 Dasim교수가 참관하여 활쏘기 연습도 보고 직접 25파운드 활로 쏘아보기도 하였다. 다심교수는 고향이 West Java의 Samedang인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Jampe Kuring이란 전통활쏘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사라졌다고 아쉬워하며 나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기고 글인 *"Renaissance of Traditional Archery in Asia"* (*Sangsaeng No. 59 2022, APCEIU*)에 관심을 보이면서 은퇴 후 반동지역 전통활쏘기 문화 복원 노력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4회째 수업부터 몇몇은 25파운드 활로 연습하기 시작하였다. 연습 6-7일째에는 무소니프는 40파운드 활로 연습했다.

8월 15일 마지막 수업에서는 그동안 공부해왔던 활쏘기문화의 특징과 활쏘기 연습과정을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9명 학생이 8회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따라와 준데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2주 내내 수업에 참가하면서 느낀 인상, 힘들었던 순간, 즐거웠던 경험들을 나누는 짝막한 인터뷰를 동영상에 담았다. 점심은 학생들과 함께 엘리카 아버님이 사장 겸 주방장으로 계신 Markas라는 식당에서 빠당(Padang) 음식으로 먹었다. 빠당 음식은 수마트라 지역 음식으로 뷔페식으로 다양한 생선요리와 신선한 야채를 즐길 수 있다. 마지막 수업을 축하할 만큼 아주 훌륭한 요리였다.

8월 19일 화요일 10:00-11:30에는 활쏘기 문화 반동 프로젝트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 활쏘기문화 강좌를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하였다. 국궁 수업에 참가했던 9명 학생을 포함 모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궁 수업에는 참가하지 못하였던 대부분 한국어교육과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한국 활쏘기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 3. 평가와 제언

우선 반등에 있는 UPI 한국어과와 연계를 해 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활쏘기문화 프로젝트 제안을 받아주신 UPI 한국어교육과 디딘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기관 간에 협력사업이 아니고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이었기에 UPI 한국어과에서 나름 최대한 협조가 있었으나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궁은 대표적 한국 전통문화로 한국어 교육과 함께 중요한 한국 문화과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도네시아 경우 UPI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대학 UI, Gadjah Mad a대학과 UNAS 등 최고 수준의 대학에 한국어교육과 설치되어 있고 최근 K-Culture 붐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한국어교육자 협회(AJARI)는 세종학당, 한국문화교류재단, KOICA, 국립국제교육원 등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UPI의 디딘 교수가 회장(2024-27)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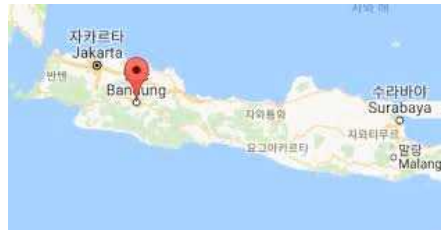
시작단계부터 정규 과목이 아니더라도 우선 한국어교육과가 주도하는 국궁 동아리 형성과 그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카본 궁과 카본 샬을 이용한다고 해도 개인이 구입하기에 부담이 크므로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145m 사거리 활터가 어려운 경우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거나 근처 부지를 찾아보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UPI에서도 145m 공간은 찾지 못했지만 체육시설 관리부의 허락을 받아 축구장을 활용할 수 있었다. UPI 한국어과 경우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교수 총원 예산도 부족하여 한국 문화교류재단, KOICA 등에서 파견된 교수로 충당하고 있다. 대부분 개도국의 한국어교육과 경우 재정부족 문제를 안고 있어 활쏘기문화가 새로운 활동이나 교과로 도입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한국어 교육과 케데헌 등 K-Culture 열풍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문화교류재단(KF), 세종학당,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등 한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의 기관들이 우리 활쏘기가 지닌 다양하고 심오한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면 활쏘기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기금(ODA)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망이 밝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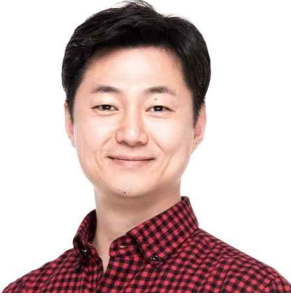
이러한 기관들과 협력을 모색하여 우리 활쏘기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견인차 역할은 앞으로 활쏘기문화보존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라 생각한다. 끝으로 한국어교육 분야가 아니라도 현재 외국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나 유학생들 중에서 국궁에 심취하여 그곳에서 국궁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싶은 분들에게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일도 활쏘기문화보존회가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끝.

참고

1. [인도네시아 반둥활쏘기](#)
2. [K-Archerlee](#)



## 제8회 중국 오채신전(五彩神箭) 국제민족전통활쏘기 초청대회 참 가기



서보경(TAC 대표)

필자는 2025년 9월 초, 중국 칭하이성(青海省) 황난장족자치주(黃南藏族自治州) 지엔자현(尖扎县)에서 열린 ‘제8회 오채신전 국제민족전통활쏘기 초청대회(第八届五彩神箭国际民族传统射箭邀请赛)’에 참가했다.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중국 국제대회 출전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중국 전통활쏘기의 발전 속도와 변화 양상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 활쏘기의 국제적 위치 또한 점검할 수 있었다.

칭하이성은 중국 서북부 고원지대에

위치하며 티베트(西藏)의 동쪽, 스촨성(四川省)의 북서쪽에 자리한다.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는 비교적 적으며, 장족(藏族·티베트족) 인구가 전체의 21%(101만명)를 차지하는 곳으로 대도시 2곳을 제외하면 모두 장족자치주로 구성되어 있다. 장족 사회는 활쏘기를 전통문화이자 생활체육으로 전승해왔고, 그 가운데 지엔자현은 ‘중국 민족 활쏘기의 본고장(中国民族射箭运动之乡)’으로 불릴만큼 장족 전통활쏘기 문화를 잘 전승하고 있다. 도시 슬로건이 ‘화살의 도읍(箭都)’이라는 점만 보아도, 이 지역에서 활이 갖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이번 대회에서도 지엔자현은 전용 경기장 1곳, 클럽 활터 10곳, 자원봉사자 150여 명을 풀가동하며 도시 역량을 총동원했다.

오채신전 대회는 2007년부터 격년으로 열려 올해로 8회를 맞았다.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벨라루스, 독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 25개국 25개 팀과,

상하이, 베이징, 광둥성, 타이완, 홍콩, 칭화대학 등 중국 청해성 외 지역 20개 팀, 그리고 청해성 내 100개 팀이 참가하여 총 2,300여 명이 출전했다. 해외 초청 선수의 경우 항공료, 현지 이동수단, 숙식이 지원된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팀은 김지찬·신상훈·심재경·최동욱·서보경(필자) 등 5명이다. 필자가 지난해 6월 공개 선발전을 통해 팀을 꾸렸다. 다만 오채신전 대회 일정이 6월 말에서 9월 초로 변경되면서 선수 한 명이 일정문제로 교체되고 대회준비, 훈련 계획을 모두 조정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그럼에도 7월부터는 서울 화랑정과 TA C 본점에서 매주 두 차례씩 60m 사거리 및 투바(土靶) 경기 방식 적응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해나갔다. 특히 서울 화랑정의 협조 덕분에 쾌적한 60m 훈련 환경을 확보하여 무더운 여름에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9월 4일 정오, 인천공항을 출발해 약 8시간의 비행 끝에 칭하이성의 성도(省都) 시닝(西寧)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픽업 차량을 이용해 약 1시간 이동한 뒤, 늦은 밤 선수단 숙소인 선바오폴먼국제호텔에 체크인했다. 5일 오전에는 호텔 인근 활터에서 습사를 진행했다. 이 활터는 2년 전 경기가 열렸던 곳으로 비교적 익숙한 장소였다. 국제 대회에서 현지 도착 후 진행하는 습사는 여러면에서 중요하다. 장거리 이동이 수반되므로 선수와 궁시 장비의 피로도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수 컨디션 조절과 장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환경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데, 실례로 지엔자현은 해발 2,400m 고도에 있어 기압이 낮아서 표를 미세하게 낮춰 조정해야 했다. 그런데, 이전 대회에서는 습사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습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필자를 포함한 여러 선수들이 사전에 계획된 시간에 습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번 대회에서는 이 점이 개선되었다.

오후에는 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 팀 다섯명 모두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바지저고리와 포(袍)는 기존에 각자 준비해둔 것을 활용했고, 모두 갓을 착용하고 궁시를 들었다. 갓 착용은 필자가 지난 2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마련한 아이디어였고, 여기에 최동욱 접장이 손수 제작한 갓끈을 더하자 훨씬 멋스럽게 완성되었다. 개막식 내내 현지 관람객들은 물론 선수들, 대회 관계자, 방송국 등에서 사진촬영 및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마침 당시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인기까지 겹쳐 현지 청소년 사이에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말 그대로 연예인과 같은 관심을 받으며 한국 문화의 힘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개막식 전에는 다둔(达顿)에 참여했다. 다둔은 티베트어로 ‘화살 연회(箭宴)’라는 뜻으로, 활쏘기 대회 전후에 열리는 대규모 교류 연회이다. 끝없이 길게 늘어선 긴 테이블에 선수들이 마주 앉아 지역 전통음식과 노래, 춤으로 교류를 나눈다. 한국팀은 해외팀 테이블 중 가장 앞자리에 배치되어 사진 세례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개막식은 7회 대회(2023년)보다 규

모가 더 커지고 화려해졌다. 각국의 국기를 들고 해외팀이 먼저 입장하고, 뒤이어 중국 성외 팀, 칭하이성 팀 순서로 입장한 뒤 본행사와 축하공연이 1시간 30분간 이어졌다.

경기는 6일 조별 예선리그부터 시작되었다. 해외팀과 중국 성외팀은 ‘전통궁 5인 단체’ 종목으로 출전한다. 이 종목은 각 민족이 고유한 궁시와 사법으로 겨루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활은 전통궁 또는 전통 형상을 기반으로 한 라미네이트 활(카본 활·글라스파이버활)까지 허용되며, 조준기, 스테빌라이저, 댐퍼 등 현대식 부착 장비는 금지된다. 화살은 죽시·목시 등 살대·깃·오늬 모두 천연재료여야 한다. 사법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엄지걸이로만 쏘아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유럽 선수들의 반발로 실제 경기에서는 쓰리핑거도 허용된다.

이 외에도 청해성 내 팀이 출전하는 각궁(角弓) 20인 단체, 복합궁(컴파운드보우) 20인 단체, 반곡궁(리커브보우) 20인 단체 경기도 진행되었다.

출전팀이 워낙 많은 종목이다보니 8월말부터 이미 예선을 시작하여 대회 기간 중에는 본선만 진행된다고 한다. 각궁 단체 종목은 장족 전통 흑각궁만으로 출전할 수 있으며, 지엔자현 대표팀 선수들에 따르면 가문에서 전승하고 있던 오래된 각궁을 가지고 출전한다고 한다. 그 중에는 80년 이상 대대로 사용해온 활도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모든 경기는 장족 전통의 ‘투바(土靶)’ 경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과녁은 밑변 70cm·높이 80cm의 삼각형이며, 적중 수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삼각형 꼭짓점에 가장 가까운 화살을 쏜 팀이 승리한다. 상대팀이 10중이어도 우리팀 화살 한발만이라도 가장 높이 꽂혀 있으면 이기는 것이다. 경기는 3세트 2선승제로, 한 세트에 선수 1인당 2시를 쏜다.

전통 그대로 진행되는 장족 팀간 경기는 매우 열기가 뜨겁다. 상대 발사 때 고함, 노래로 방해하는 것은 물론 각 편 고전은 상대편이 쏠 때 과녁 바로 옆에서 춤을 추며 얼르기도 한다.

다만 해외팀이 포함된 전통궁 5인 단체 부문에서는 이러한 방해는 거의 없었다.

한국팀은 예선 E조에서 후난(湖南), 타이완(台灣), 파키스탄, 4국 연합팀(독일·카자흐스탄·태국·몽골)을 모두 제압하며 4전 전승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김지찬 접장이 안정적인 실력으로 경기의 무게중심을 잡았고, 신상훈 접장, 심재경 접장, 최동욱 접장도 각 승부처마다 가장 높은 곳에 화살을 적중시키며 세트를 따냈다.

이후 8일 치러진 본선리그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으며 9일 시닝으로 이동하여 체류한 뒤, 10일 귀국함으로써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8회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참가 선수 수도 가장 많았으며, 개막식도 이전에 비해 매우 성대했다. 경기 또한 짜임새 있게 운영되었다. 주최측의 지원 속에서 한국팀은 편안한 환경에서 진지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고 대회 일정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대회 참가팀 중 일부는 ‘전통활 처럼 보이지만 그 연원을 알기 힘든’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한 형태의 개량궁을 사용했다. 또한 엄지손가락으로 시위를 걸고 있을 뿐, 궁체는 올림픽 리커브와 동일한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는 양궁 슬링까지 사용했다. 더욱이 이러한 장비, 궁체를 사용한 팀들이 대거 8강에 진입하면서 선수들간에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특히 전통성을 중시하는 중국 전통활쏘기 부흥 1세대 팀들 가운데서는 오채신전 대회 전통궁 5인 단체 종목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으며, 현행 경기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팀은 전통 궁체와 궁시장비를 끝까지 유지하며 경기를 치렀고, 예선 전승과 본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이는 전통성을 고민하는 다수 중국 지역팀에게 귀감이 되었고, 필자에게도 많은 응원과 격려 메시지가 이어졌다.

궁과 유적에서 밤낮으로 열리는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티켓 구매에 열을 올리고, 기업들이 앞다투어 후원한 전통 아이템 제작 클래스를 듣는다. 바야흐로 현대에 녹아든 전통이 젊은이들의 대세가 된 시대이다.

여기에 우리 활쏘기도 한발 걸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경험과 재미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이미지를 올리면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다른 이에게 전달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의 전통활쏘기가 국제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물론 성과와 숙제도 함께 남겼다. 우리 활쏘기가 앞으로 어떤 형태와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다.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국제 전통활쏘기 대회는 과연 어떠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했다. 이 경험은 다음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내년 중국 국제대회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끝.

### 제3회 총장공 양헌수 기념 활쏘기대회를 마치고



양희선

(총장공 양헌수기념 대회추진위원회  
위원장, 화랑정)

3년 전 겨울 눈 덮인 양평정에서  
처음 시작한 양헌수장군기념 활쏘기  
대회가 올해 세 번째로 서울 한강

변 난지 국궁장에서 개최되었다. 학생  
부와 일반부를 합쳐 출전 선수 95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닦아온 활솜씨를 겨  
루었다.

대회의 의미 몇 가지를 꼽자면 양헌  
수 장군이 프랑스군과 격전 끝에 프랑  
스군을 물리친 강화도의 강화정 한량  
들이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대회에 참  
석한 점, 많은 대학생들이 전통 활쏘  
기 문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모습, 특히  
멀리 전주의 전북대학교와 강원도 춘  
천의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점  
과, 남녀 구분 없이 진행한 대회에서  
여학생과 여무사들의 참여도와 활솜  
씨가 장원을 비롯해 궁체상 등에서 남



(제3회 총장공 양헌수기념활쏘기대회 2025.11.15)

성 군사들을 앞질렀다는 점 등이다. 이 밖에 양헌수 장군이 무과급제를 준비하던 양평군 택승정에서 초등학교 시절 활쏘기를 배운 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대회에 참석하였다는 뜻밖의 얘기가 있었다.

대회 경위를 보면 제1회 대회는 2022년 12월27일 양헌수의 고향인 경기도 양평의 양평정(사두 차운경)에서 (사)활쏘기문화보존회(회장 나영일) 주관으로 양평군수(군수 전진선)를 모시고 개최하였다.

이듬해 2023년 11월 4일에는 한국궁도대학연맹(당시 회장 한용진) 주관하에 양평정에서 대회를 이어갔고, 2024년은 형편상 건너뛰고, 금년 11월 15일 햇살 좋은 가을날에 처음 대회추진위원회(위원장 양희선) 주관하에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날짜는 병인양요 승전 기념일(1866년11월9일)과 대학생들의 학기를 감안하여 주로 11월을 전후하여 날짜를 잡았다. 올해는 병인양요 초기에 조선의 천주교 박해를 명분으로 프랑스 군함 세 척이



(제1회 총장공 양헌수기념활쏘기대회 2022.12.27.

가운데 넥타이 맨 분이 양평군수)

한강의 양화진까지 거슬러 올라와, 한양 백성들을 피난길에 오르게 했던 한강변에서 병인양요의 영웅을 기리는 대회를 열었다. 대회 개최를 위해 양씨 문중, 전통활쏘기연구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물질적 후원과 재능 기부를 했다. 참여자들의 인기가 높았던 인간문화재 궁시장이 만든 편전, 유명 서예가의 활쏘기 격언 작품, 학생들의 호응이 몰렸던 목궁 체험과 시연, 따뜻한 어묵탕을 제공한 푸드부스 등이다. 이번 대회를 이끌며 느낀 점은 대학생들의 참여도, 특히 여학생들의 참여도가 생각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이런 대회가 많이 생긴다면 활쏘기문화 전통계승에 큰 도움이 되겠다.

앞으로도 대회의 앞날이 밝아 보인다. 대회에 참석하였던 강화군궁도협회(회장 양재형)이 강화군민의 원로로서 정족산성의 전투 승전을 기념하여, 강화군에서 이 대회를 계속하여 이어

가야 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다. 대회를 계속 이어가며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양헌수장군기념사업회를 구성한다면 세미나 등 학술 활동과 함께 대회의 내실을 다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끝.



총장공 양헌수 장군

## 점필재 김종직과 향사례



박근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연구원, 홍심정)

점필재 김종직은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강호 김숙자의 도학의 정통을 계승하여 한훤당 김굉필과 일두 정여창에게 전수하였고 한훤당의 도학은 정암 조광조- 퇴계 이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점필재 김종직은 도통맥의 중심축으로서 도학의 종장으로 일컬어지게 된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근본 문제는 천년 불교의 유습을 극복하고 성리학을 국가의 근본사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었다. 조선 성리학은 도학의 전승을 위해 두 가지 수행 방법론을 제시하

게 된다. 한 가지는 주자의 방법론을 계승하여 『소학』공부를 통해 경(敬)을 습득하는 것이요, 다른 한 가지는 주자가 미처 제시하지 못한 활쓰기를 통해 경(敬)을 습득하는 방법론이다. 『소학』을 통해 경(敬)을 습득하는 방법론은 점필재의 도통을 계승한 한훤당 김굉필에게서 안착이 되었고, 활쓰기를 통해 경을 습득하는 방법론은 점필재에 의해 향사례가 보편화됨으로써 비로소 장구한 서막을 열게 된다. 점필재는 『소학』과 활쓰기의 도학의 두 가지 방법론에서 모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점필재는 언제부터 향사례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42세(성종 3년 1472년)에 함양군수로 제수하였던 시기에 점필재는 향음주례와 향사례, 양로례를 통해 풍속을 쇄신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두 정여창과 한훤당 김굉필을 제자로 맞이하여 고인의 가르침(강호 김숙자)의 차제를 좇아 강학을 하게 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 이때의 향사례는 군수의 신분으로써 자발적으로 시도했던 것으로 보

인다.

제도화된 향사례의 정착은 2년 뒤인 성종 5년(1474년)에 반행된 『오례의』에 나타나게 된다. 『오례의』에 실린 향사례의 모습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 훗날 예법이 발달할수록 더욱 절차화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 틀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점필재는 향사례의 활성화를 왕에게 건의하였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되자 이를 실행할 기구로 유향소 복원을 건의하게 된다. 이때의 유향소의 역할은 조선초기의 유향소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이전의 유향소는 향촌 자치를 위해 수령을 감독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기능을 하였다면 점필재가 복원하기를 주장하는 유향소는 향사례(향음주례)의 보급을 위한 것이다. 그간 향사례가 보편화되지 아니하는 것은 시행의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누차에 걸친 유향소복원에 대한 건의는 결국 성종 19년(1488년)에 복원이 윤허된다. 성종 19년(1488년)에 복원되는 유향소의 기능은 향사례 향음주

례의 시행을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종 21년(1490년)의 내용을 보면 유향소가 복원된 지 2년 만에 향사례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음주례는 10월에, 향사례는 3월 3일과 9월 9일에 시행되었던 것이다.

당시에 향음주례와 향사례에 선발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음주례는 연장자로써 덕행이 있는 인물을, 향사례는 효제충신으로 인정받은 인물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인재선발의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사례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덕을 닦기에 힘썼으며, 이로 인해 풍속의 교화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향사례의 참여 대상을 선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참여 인물에 대한 선정, 향사례 관리 감독 등의 일련의 과정이 유향소의 역할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유향소라는 명칭도 향사당으로 바뀌게 된다.

『수헌집』을 통해 이후 평시의 활쏘

기 또한 향사당에서 시행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야외에서 단(壇)위에서 활쏘기를 하였다면 향사당이 세워진 이후에는 당(堂)에서 활쏘기를 하게 된 것이다. 세인들이 이에 대한 연유를 문자 분별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는 모든 일이 당(堂)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쏘기를 통해 권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당(堂)에서 활쏘기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활쏘기의 역할이 내면적 성정을 완성하는 수단, 경법을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활쏘기 속에 내재된 수련구조로서 경법이 이미 보편화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전의 활의 통념이 변화되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본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유향소에 세운 향사당은 점차 활을 쏘는 장소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향사당의 풍습은 오늘날 활쏘기의 모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활쏘기 또한 향사당의 활쏘기를 계승하여 당의 처마 아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향사례의 활쏘기의 형태가 오늘날 활쏘기의 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은 1900년대로 초기로 추정된다. 소매를 걷고 팔찌를 끼고 있는 향사례의 단·결·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왼쪽 사람(상사)이 먼저 발시 한 이후에, 다시 화살을 활에 끼우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사람(하사)가 발시 하는 것, 허리에 화살을 끼는 것 등은 모두 향사례의 예법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두 명이 한조가 되어 쏘는 것에 반해 다수가 서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림 1>에서는 네 명이 한조가 되어 활을 쏘고 있다. 이때도 상사가 발시 한 이후에는 다시 화살을 현에 걸고 있다. 네 명이 활을 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화살을 현에 걸고 기다리고 있다. 활을 발시하고 이내 다시 화살을 현에 거는 것이 향사례 법이기 때문이다. 향사례와의 차이점이라면 두 명에서 다수로 늘어났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향사례적 활쏘기는 20세기 초기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향음주례와 향사례의 남긴 법이 나날이 새로워  
지니(鄉飲遺謨一日新)

성한 조정의 풍화가 여러 인륜을 뛰어나게 하네  
(盛朝風化冠群倫)

황화대 아래에서 술잔을 기울이니(黃花臺下方  
酬酢)

모든 사람들이 한가지로 주인과 손님을 바라보  
네(萬目同看主與賓)

예법은 다섯 술잔에 이루어지니 서로 번갈아 법  
이 되고(禮成五酌更相規)

사사는 머뭇거리며 따르는데 모두 말이 있네(司  
射逡巡舍有辭)

일거에 아울러 행하니 비록 참람함이 있는 것 같  
으나(一舉並行雖似僭)

고을 사람은 옛 거동을 아는 듯 하네(鄉人髣髴  
識遺儀)

수고롭게 부르지 아니하여도 활쏘는 사람들이  
모이니(不勞徵召射夫同)

읍하고 사양함이 오히려 남아있으니 삼대의 풍  
이라(揖讓猶存三代風)

거듭 채번을 다하고 깎지와 팔찌를 거두니(疊盡  
采繁收決拾)

충연히 행단에 있는 것 같음이라(充然如在杏壇  
中)

바로 이 푸른 봄 삼월 삼일(正是靑春三月三)

언덕 머리의 무겁 터는 북소리가 은은하네(岡頭  
射塚鼓籟籟)

술잔을 흐르는 물에 띄워 노는 것은 어리석고 하  
릴없는 일이지만(流觴曲水渾閑事)

술잔을 날리는(향사례)의 여운은 즐겁고 또한 담  
담하네(揚觴之餘樂且澁)

『佔畢齋集』 「詩集」 22권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은 서는 순서  
와 현을 거는 동작 등에서 변화를 가  
져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과정은 향사  
례적 활쏘기의 계승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점필재는 57세 성종 18년(1487년)  
전라 관찰사 시절에 향사례를 거행을  
구경하고 감회를 시에 담고 있다. 아직  
예법의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사사(  
司射)의 머뭇거림과 절차의 성급함이  
있다고 점필재는 지적한다. 그러나 이  
는 점필재에게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  
았다. 미풍양속은 사람을 소집하고자  
하지 않아도 서로 향사례에 참여하고  
자 하였고 절차는 다소 미숙하지만 읍  
하고 사양하는 모습에서 상호 공경의  
마음이 충만함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이는 점필재가 그토록 복원하고자 하  
는 대동사회의 모습이였다. 유상곡주  
는 단지 권력자들의 사치와 낭비에 불  
과하지만 향사례를 백성들과 함께 행  
하고 난 뒤의 여운은 그 즐거움이 오  
래 동안 남기 때문이다. 끝.



1900대 초기 향사례적 활쏘기의 모습

謙讓과 德談의 대표적 상징 :

초시례(初矢禮)



義山 김이수  
(서령정)

신사가 집궁(執弓)하여 제반적인 활터 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고 활쏘기의 기초를 익히고 나면 정식으로 집궁하게 된다. 그 과정은 집궁례라는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과정은 지역과 각 활터의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근래에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다. 집궁례를 하면 정식으로 활터의 사원으로 자격이 주어지고 이때부터 사대(설자리)에서 활을 쏘게 된다.

그리고 활터의 사원이 되면 등정할 때마다 등정례(登亭禮:활터에 올라오면서 행하는 예절)와 초시례(初矢禮

:매일 첫 순을 낼 때 행하는 예절)를 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조선의 궁술』에서는 ‘사정에 와서 초순 쏠 때(登亭及初巡時: 등정과 초순의 예)’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원은 사정에 올 때마다 반드시 첫 인사로 먼저 온 사원을 향하여 ‘왔습니니다’라고 인사하고 먼저 온 사원들은 대답하기를 ‘오시오’라고 한다. 이것도 계급과 노소에 따라서 ‘왔소’라고 하거나 존경하고 ‘오시오’라고 하기도 한다. 습사를 할 때에는 처음 초순의 첫 번째 화살을 쏠 때에 활을 당기면서 ‘활 배웁니다’라고 하면, 사원들은 ‘많이 맞히시오’라고 한다. 이 역시 계급과 노소에 따라서 ‘쏘’라고 하면 ‘맞히시오’라고 하기도 하였다. 비단 초순 뿐만 아니라 쏘던 중간에 본정 사원이나 타정 사원은 물론이고 사대에 오르는 사원에게도 역시 ‘활배웁니다’라고 하면 ‘많이 맞히시오’라고 하였다(김이수, 2010:160).

인용문의 첫 번째 문단은 등정례를, 두 번째 문단은 초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집궁례는 일전의 기고문에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초시례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초시례는 글자 그대로 등정 후 처음 화살을 쏠 때의 의례를 일컫는다. 즉, ‘활배웁니다’는 ‘오늘 활쏘기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아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더불어 장비(활과 화살 등)와 공간(혹자는 활터 주변의 신 또는 잡신)에 예를 표하는 절차라고 해석하기에 필자는 초시례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겸양과 덕담의 주고 받음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배움을 청하는 여유로움으로 겸양의 마음을 표하고, 주변의 궁사들이 ‘많이 맞히시오’라고 맞장구로 받아줌으로써 그 사람을 격려하며 덕담을 건네면서 활쏘기를 시작한다.

이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겸양과

덕담의 생활문화가 활쏘기로 나타난다. 또한 전통적으로 활(각궁)과 화살(죽시)은 생물이어서 살아 움직인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즉 점화장에서 쉬고 있던 활(각궁)을 꺼내어 잠을 깨우고,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활은 올리는 과정도 여유로움을 가지고 신중하면서도 천천히 행해진다.

또한 사대에서 활을 쏘는 과정도 서두르지 않고 한가로운 마음으로 활을 쏘는 것이 활쏘기의 전통이었다. 이 모두가 자신은 겸허하게 낮추고 주변 모두를 배려하는 마음을 초시례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간과 하나 되는 과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수험생이나 스포츠 선수도 낮은 환경에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수 많은 경험과 숙련의 과정을 통해 낮설음을 극복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다. 활터에서의 초시례도 낮설음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 접하는 사대(설자리)이지만 기온이 다르고, 풍세가 다르며, 옆자리의 궁사가 다르니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특히 낮선 때에는 서두르는 것보다는 여유로움과 한가한 마음으로 초시례의 과정을 통해 공간과 하나 되는 것 역시 필요해 보인다. 더 나아가 옛날부터 활터자리는 무속신앙과도 무관하지 않다. 역사 깊은 활터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서원, 사찰, 묘지, 중요 전쟁터,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 것처럼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도는 곳에 터를 잡았던 사례가 많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요즘에도 야사를 즐기는 궁사들의 경험담에는 무속적인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즉 초시례를 통해 무겁터의 신에게 활쏘기를 잘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무속적 의미도 있다고 해석된다. 셋째는 장비와의 하나됨이다. 각궁(角弓)과 죽시(竹矢)를 사용하던 때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활과 화살은 살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주의하고 주변을 항상 경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신의 부상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도 통한다. 각궁과 죽시의 경우, 막만타궁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활을 쏠 때의 마음은 엄숙해야 하며, 활과 화살을 다루는 과정은 진중해야 한다. 궁사는 활을 잘 쏘기 위해서는 ‘활을 이겨야 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곤 한다. 이 말의 표면적 의미는 역학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활의 기능과 성능을 이해하고 궁사와 활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활터에서의 활쏘기는 전장에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전장에서는 결과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지만, 활터에서의 활쏘기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더욱 중요시한다. 따라서 장비와 궁사가 하나되어 장비의 기능과 궁사의 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간과 하나되는 과정을 통해 여유로움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이룸으로써 겸허의 마음으로 겸양과 덕담을 주고 받으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과정이 초시례의 표상이라고 하겠다. 끝.

1. 반구대 암각화 “활쏘는 사람” 또 찾았다. 총 6점 / 2025.07 / 울산매일  
이하우 한국선사미술연구소장 . 최원석 집청정 대표논문
2. [울산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됐다 - 울산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됐다.](#)
3. [청년시수꾼 아카데미](#) 2025.7.-10. (총 8차시), 한국궁도대학연맹
4. 박근, 향사례 관련 논문 “조선 향사례의 제천의식이 태극의식으로 변천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 2025.08.
5. 이승환 이사, 인도네시아 반둥에 있는 UPI 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에서 활쏘기문화보존회이름으로 우리 활쏘기와 한글을 한달간 가르치다. 2025.08.
6. 최석규, 한국 신체문화의 원형 ‘활쏘기’ 연구 발표회.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2025.08.23.
7. 보존회 고문 조영석 명궁님 별세, 2025.08.25.
8. 제32회 장안편사대회, 공윤식, 2025.09.30.
9. 2025 Korea 울산 세계궁도대회, 2025.10.31-11.03
10. 전국대학궁도대회, 한국궁도대학연맹, 강원도 횡성 태풍정, 2025.11.01.
11. [부천박물관,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세미나](#), 2025.11.27.
12. 김기훈, [국궁 발전의 두 개념: “활성화”와 “문화발전”](#), 2025.11.21.
13. 활쏘기문화보존회 총회 및 편사대회, 양평정, 2025.12.20. 13:00

## **회원 대모집**

1. 활쏘기문화보존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새롭게 회원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2. 주위에 활쏘기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추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홈페이지](http://kacs2020.com/bbs/board.php?bo_table=0501)([http://kacs2020.com/bbs/board.php?bo\\_table=0501](http://kacs2020.com/bbs/board.php?bo_table=0501))에 들어가 먼저 로그인한 후, “자료마당”에 들어가 “각종서식”에 있는 “입회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다음, 지동철 국장(010-6217-163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소식지 일시천금 2025년 12월호

